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와 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성

- 한국과 일본의 비교 -

박천만** · 오까다세쓰코**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 **우승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 목 차 〉

I. 서론	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IV. 고찰	

I. 서론

21세기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의 큰 특징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동시에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이러한 인구 현상은 그 속도에 있어서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경과를 보면, 한국은 1960년에 6.0이었으나 4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47로 떨어졌으며, 2002년에는 1.17, 2005년에는 1.08로 일본(2005년 1.29)보다 낮은 실정이다(김승권, 2000; 김승권 등, 2006). 고령화율은 1970년에 3.1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7.0%로 상승하였으

며 2005년에는 9.3%로 향후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 2018년에는 14%로, 이른바 「저출산·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7). 양국의 출산율 저하는 인구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厚生省,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출산율 저하의 배경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점과 결혼을 필연적인 의례가 아니라 선택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결혼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와중에 양국의 전통적인 가족

* 이 논문은 계명대학교 비사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박천만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704-701)
전화번호: 053-580-5451, E-mail: cmpark@kmu.ac.kr

형태 및 가족구조는 극단적으로 취약해지면서 핵가족이나 독신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家事)와 육아(育兒)는 여성의 전업(專業)」이라는 사회적 의식은 잔존하고 있어서 남성들의 직장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 패턴은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결과적으로 직장을 가진 주부는 「직장일과 가사·육아」를 양립(兩立)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정신적·신체적으로 여유가 없는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전업주부는 이웃과 고립된 환경 속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 힘들고 고독한 생활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川井尙, 1992; 網野武博, 1993; 厚生勞働省, 2001).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북미나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육아는 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역할 분담 의식이 강하고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는 사실이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주부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육아를 즐거움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厚生省, 1998).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률에 대한 정부대책의 주요 골자는 편안하게 자녀를 낳아, 여유를 가지고 건강하게 기르기 위한 환경 조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川井尙, 1992; 網野武博, 1993; 厚生省, 1998; 厚生勞働省, 2001).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육아에 협력하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 형태는 남편이 부인의 육아를 후방(後方) 지원하는 형태이며 육아에 주체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川井尙, 1992).

그러나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육아지원

또는 육아참가는 부인의 정신적 건강이나 모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川井尙, 1992; 網野武博, 1993). 남편의 육아참가는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의 범주에 포함된다. Lazarus 등의 「스트레스 인지이론」에 의하면 남편이 육아에 참가하는 빈도뿐만 아니라 남편의 육아참가나 육아지원을 부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인지)가 스트레스 반응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고 한다(Folkman, 1984; Lazarus와 Folkman, 1987; Lazarus와 Smith, 1988). 그러나, 이러한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를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연구자 등은 그것을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일본어 판)」로 개발한 바 있다(中嶋和夫 등, 2000).

일반적으로 복수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측정 척도는 적절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내부 구조(인자 모델)의 측면에서 본 구성 개념 타당성이 통계학적인 허용 범위에 없으면 측정 개념의 일차원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측정 내용의 가산성(加算性)은 보증되지 않으므로 구성 개념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언어적인 문제나 문화적·역사적인 배경이 복잡하게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개념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어로 개발된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를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의 내부 구조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인자 불변성을 검증하고, 2번째로 외적 기준으로 설정한 「정신적

건강도(GHQ)」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인자 모델로 측정된 결과와 정신적 건강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II.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한국에서의 조사는 D시에 소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4곳의 협조를 얻어 재원 중인 아동의 모친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통계 해석에는 회수된 조사표 1,005명(회수율83.4%) 중에서 전 항목에 회답 결손치가 없는 829명의 자료를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S시의 전체 사립 유치원과 보육원(25개소)에 재원하는 아동의 모친 1,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통계 해석에는 회수된 조사표 1,527명(회수율 77.9%) 중에서 한국과 같이 질문항목에 결손치가 없는 1,302명의 자료를 사용했다.

조사 기간은 한국이 2005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일본이 2006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였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일본의 경우 S시의 25개소의 사립유치원과 사립보육원에 재원 중인 자녀를 가진 모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D시를 행정구역별로 층화 추출하여 얻어진 25곳 가운데 1곳을 제외한 24개 유치원 및 보육원에 재원 중인 자녀를 가진 모친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한국, 일본 모두 원장의 협조로 대상자들에게 조사의 목적·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한 후, 비밀 엄수를 약속하고 조사표 배포와 회수를 실시했다. 조사는 자가 기입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조사내용 및 측정도구

조사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항목(연령, 교육력, 세대 구성, 자녀의 수)과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와 정신적 건강도를 조사했다.

육아지원에 대한 인지는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中嶋和夫 등, 2000)」를 연구자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번역에는 번역과 재번역의 과정을 거쳤으며, 보건학과 심리학, 교육학과 교수 3인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개념(인자)은 저자 등이 House 등(1982)의 연구를 기초로하여 작성한 것이며, 수단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 원조 행동),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공감, 애정, 신뢰), 정보적 지원(information support: 대처를 위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된 10항목에 대해 평소 남편에게 원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3점 척도로 회답을 요구하였으며, 「기대할 수 없다-0점」 「조금 기대할 수 있다-1점」 「매우 기대할 수 있다-2점」으로 하였다. 정신적 건강도는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이하 인지척도라 한다)」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증명할 외적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영국판의 정신 건강 조사표인 「GHQ-12」로 측정했다(Goldenberg와 Hiller, 1979). 4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고, 긍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득점화는 GHQ 채점법(4 선

택지의 왼쪽으로부터 0-0-1-1점, 0점 「비우울」, 1점 「우울」, 범위 0-12점)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득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통계 해석에서는 먼저, 인지척도의 인자 모델을 「정서적 지원 인자」 「수단적 지원 인자」 「정보적 지원 인자」를 일차 인자,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를 2차 인자로 하는 2차 인자 모델로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한 동시인자분석을 시도했다(Joreskog, 1971). 동시인자분석은 단계적으로 모델의 모수에 제약을 더해감으로서 집단간의 인자불변성을 적합도의 차이로부터 검증하는 통계해석법이다(狩野裕, 1997). 구체적으로는 동시인자분석을 제1 단계에서는 등치 조건을 두지 않고 분석하고, 제2 단계에서는 일차 인자의 인자 부하량을 등치제약하며, 제3 단계에서는 제2 단계에 더하여 2차 인자의 인자 부하량을 등치제약해서 분석한다. 제4 단계에서는 제3 단계에 더하여 2차 인자의 분산을 등치제약하여 분석하고, 제5 단계에서는 제4 단계에 더하여 관측 변수의 오차 분산을 등치제약하여 분석하고, 제6 단계에서는 제5 단계에 더하여 일차 인자의 오차 분산을 등치제약하는 6개의 조건하에서 실시했다. 부합도는 기초 부합도(Goodness of Fit Index: 이하 GFI라고 한다)와 수정부합도(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이하 AGFI라고 한다)로 평가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한 확증적 인자 분석에는 표본수에 영향을 받기 쉬운 χ^2 값을 제외하고,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이하 RMSEA라고 한다)를 채용했다.

일반적으로 GFI와 AGFI는 0.95이상, RMAEA는 0.008이상이면 그 모델이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한다(狩野裕, 1997).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기각비(Critical Ratio)의 절대치가 1.96(5%수준) 이상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에 관한 인자구조모델의 구성개념 타당성은 내부구조의 일차원성의 검토 뿐 만이 아니라 외적기준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도 검토했다. 이 때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를 독립변수, GHQ-12로 측정된 정신적 건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지표모델을 구축해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를 해석했다. 적합도의 판정에는 GFI와 AGFI를 채용했다.

마지막으로 「인지척도」를 이용해서 합계점과 인자별 득점을 산출해 ANOVA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연령, 교육력, 가족구성, 자녀수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상의 통계 해석에는 통계 소프트웨어 「SPSS 11」과 「AMOS」를 사용하였다(Arbuckle, 1997).

Ⅲ.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인의 인지 정도 및 「GHQ-12」에 대한 회답 분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표 1>, 먼저 한국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2.9세로 평균 자녀수는 2.1명이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56.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졸업 23.5%,

전문대학졸업 16.6%의 순이었다.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의 2세대 가족이 83.2%, 3세대가족이 15.4%, 기타가 1.4%이었다.

일본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4.2세로 한국보다 1.3세 높았으나 평균자녀수는 2.1명으로 같았

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졸업이 42.8%, 전문대학졸업이 35.2%, 대학졸업이 12.2%의 순이었다. 가족구성은 2세대가족이 69.6%, 3세대가 28.2%, 기타 2.2%이었다

표 1. 부인의 기본특성분포

구분		한국(n=829)	일본(n=1302)
평균연령		32.9±3.46(23-49)*	34.2±4.21(19-51)
평균자녀수		2.1±0.59(1- 5)*	2.1±0.74(1- 7)
		명 (%)	명 (%)
연령	29세 이하	112(13.5)	156(12.1)
	30세-34세	482(58.1)	558(42.8)
	35세-39세	202(24.4)	459(35.2)
	40세 이상	33(4.0)	129(9.9)
교육력	중학교졸	27(3.3)	37(2.9)
	고등학교졸	469(56.6)	638(48.9)
	전문학교·대학졸	138(16.6)	468(36.0)
	대학교 이상	195(23.5)	159(12.2)
세대구성	부부와 자녀	689(83.2)	906(69.6)
	부부와 자녀와 부모	128(15.4)	367(28.2)
	기타	12(1.4)	29(2.2)
자녀수	1 인	102(12.3)	232(17.8)
	2 인	584(70.5)	757(58.2)
	3 인	133(16.0)	276(21.2)
	4 인 이상	10(1.2)	37(2.8)

* : 평균치±표준편차 (범위)

「인지 척도」에 대한 회답 분포는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부인이 '매우 기대할 수 있다'고 답한 항목은 'X10 육아나 자녀의 발달에 관한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 준다'가 2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X5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준다' 27.7%, 'X3 부인을 끔찍히 생각해 준다' 20.0%의 순이었다. 반대로 '기대할 수 없다'고 답한 항목에서는 'X9 가사일(식사·청소·세탁 등)을 도와준다' 38.7%,

'X8 육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준다' 34.9%, 'X6 어린이의 발달에 대하여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여 준다' 3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부인은 '매우 기대할 수 있다'고 답한 항목은 'X10 육아나 자녀의 발달에 관한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준다'가 4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X5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준다' 49.1%, 'X3 부인을 끔찍히 생각해 준다' 47.5%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과 같

은 경향을 보였지만 각 대답의 비율은 한국보다 높았다. '기대할 수 없다'고 답한 항목에서는 'X8 육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준다' 39.1%, 'X9 가사일(식사·청소·세탁 등)을 도와준다' 31.5%, 'X6 어린이의 발달에 대하여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여 준다' 30.6%의 순으로 나타나, 이 역시 한국과는 순위가 다를 뿐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GHQ-12」에 대한 회답 분포는 <표 3>과 같다. 12항목의 평균 득점은 한국이 4.0(표준편차 3.15, 범위 0-12), 일본이 2.7(표준편차

2.76, 범위 0-12)로 한국이 높았다. 특히 한국은 'x2 걱정거리가 있어서 잠을 잘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63.2%, 'x5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낀 적은 있었다' 48.9%, 'x8 평소보다 우울한 기분이 된 적은 있었다' 46.8% 등 50%전후가 「우울」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응답자는 'x5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낀 적은 있었다'는 53.9%가 「우울」로 나타났지만, 다른 항목은 모두 한국의 응답자보다 그 비율이 낮은 35% 이하였다.

표 2.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아내의 인지에 관한 회답 분포

질문 항목	한국(n=829)			일본(n=1302)		
	기대할 수 없다	조금 기대	매우 기대	기대할 수 없다	조금 기대	매우 기대
	0점	1점	2점	0점	1점	2점
X1 아이가 아플 때 간병을 해준다	156(18.8)	519(62.6)	154(18.6)	245(18.8)	641(49.2)	417(32.0)
X2 아이에게 우유를 주거나 밥 먹는 것을 돌보아 준다	142(17.1)	531(64.1)	156(18.8)	285(21.9)	639(49.1)	378(29.0)
X3 (아내에 대하여) 끈직히 생각해 준다	123(14.8)	540(65.2)	166(20.0)	120(9.2)	564(43.3)	618(47.5)
X4 육아에 지치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위로해 준다	156(18.8)	523(63.1)	150(18.1)	266(20.4)	529(40.6)	508(39.0)
X5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준다	123(14.8)	476(57.5)	230(27.7)	174(13.4)	488(37.5)	639(49.1)
X6 어린이의 발달에 대하여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여 준다	264(31.8)	464(56.0)	101(12.2)	398(30.6)	578(44.4)	326(25.0)
X7 기저귀를 갈거나 대소변을 돌봐준다.	208(25.1)	477(57.5)	144(17.4)	216(16.6)	569(43.7)	517(39.7)
X8 육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제고해 준다	289(34.9)	455(54.8)	85(10.3)	509(39.1)	585(44.9)	208(16.0)
X9 가사일(식사·청소·세탁등)를 도와준다	321(38.7)	410(49.5)	98(11.8)	410(31.5)	568(43.6)	324(24.9)
X10 육아나 어린이의 발달에 관한 걱정이나 고민이 있을 때 진심으로 들어준다	54(6.5)	530(63.9)	245(29.6)	160(12.3)	496(38.1)	646(49.6)

표 3. 모친의 GHQ-12 회답분포

질문 항목	한국(n=829)		일본(n=1302)	
	비건강	건강	비건강	건강
	0점	1점	0점	1점
x1 무엇인가를 할 때 평소보다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	627(75.6)	202(24.4)	1118(85.9)	184(14.1)
x2 걱정거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305(36.8)	524(63.2)	966(74.2)	336(25.8)
x3 평소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637(76.8)	192(23.2)	1065(81.8)	237(18.2)
x4 평소보다 모든 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675(81.4)	154(18.6)	1180(90.6)	122(9.4)
x5 평소보다 스트레스를 더 느낀 적이 있었다	424(51.1)	405(48.9)	600(46.1)	702(53.9)
x6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	504(60.8)	325(39.2)	960(73.7)	342(26.3)
x7 문제가 있을 때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674(81.3)	155(18.7)	1154(88.6)	148(11.4)
x8 평소보다 우울한 기분이 된 적이 있었다	441(53.2)	388(46.8)	866(66.5)	436(33.5)
x9 자신감을 잃었던 적이 있었다	505(60.9)	324(39.1)	966(74.2)	336(25.8)
x10 자신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682(82.3)	147(17.7)	1112(85.4)	190(14.6)
x11 평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465(56.1)	364(43.9)	845(64.9)	457(35.1)
x12 일상생활을 평소보다 즐겁게 보낸 적이 있었다	705(85.0)	124(15.0)	1226(94.2)	76(5.8)

2. 「인지 척도」에 대한 인자 불변성의 검토

연구자가 가정하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의 인자불변성은 한국과 일본의 조사 자료를 가지고 모수의 동치고정을 추가하면서 검토했다. 그 결과 모수의 동치 고정의 추가에 의해 GFI는 제 5단계이후에 다소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AGFI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모든 모수를 고정하

제6 단계에서 GFI가 0.972, AGFI가 0.96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수준을 유지하였으며<표 4>, 경로계수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에 있었다<그림 1>.

표 4. 동시 인자 분석의 각 단계에 있어서 적합도(n=2,131)

스텝	등치조건	GFI	AGFI
제1단계	등치조건 없음	0.978	0.963
제2단계	λ	0.978	0.966
제3단계	λ, γ	0.978	0.966
제4단계	λ, γ, ϕ	0.977	0.965
제5단계	$\lambda, \gamma, \phi, \epsilon$	0.974	0.965
제6단계	$\lambda, \gamma, \phi, \epsilon, \zeta$	0.972	0.964

λ : 1차 인자의 인자 부하량
 γ : 2차 인자의 인자 부하량
 ϕ : 2차 인자의 분산
 ϵ : 관측 변수의 오차 분산
 ζ : 1차 인자의 오차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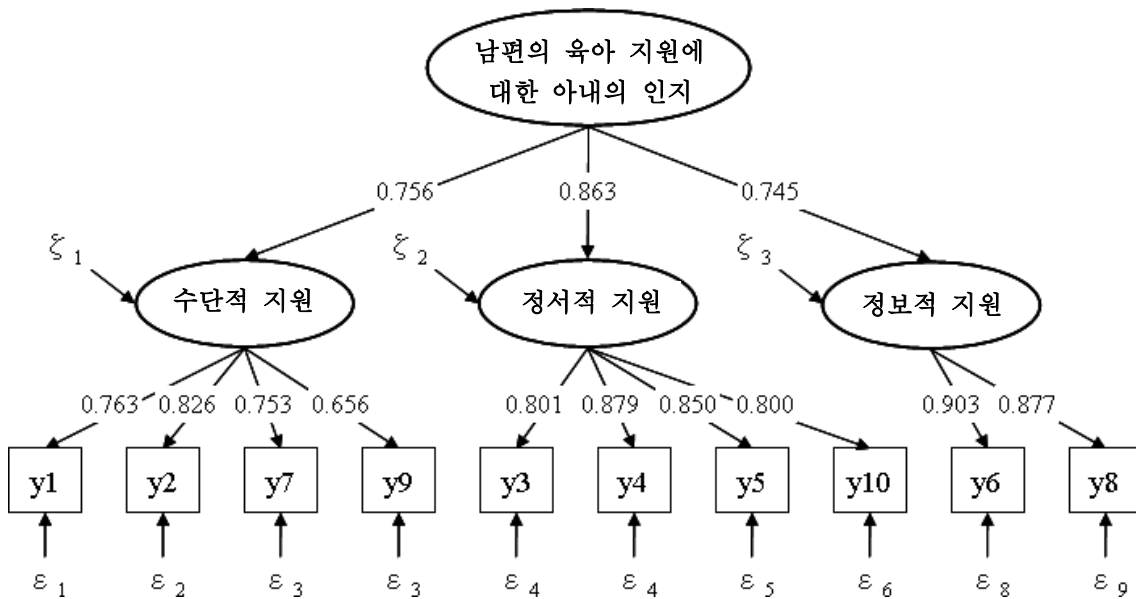


그림 1.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아내의 인지 척도의 인지 구조

(제6 스텝 : 표준화해)

n=2,131(한국 829, 일본 1,302), GFI=0.972, AGFI=0.964, RMSEA=0.040

3.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와 정신적 건강도와의 관련성의 검토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와 정신적 건강도와의 관련성을 다중 지표 모델로 조정해 그 데이터에의 적합도와 요소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해 검토했다. 한국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는 GFI가

0.957, AGFI가 0.974, RMSEA 0.060 으로,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기여율이 -29.5% 였다 (그림 2). 일본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는 GFI가 0.954, AGFI가 0.976, RMSEA 0.063으로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여율은 -28.4%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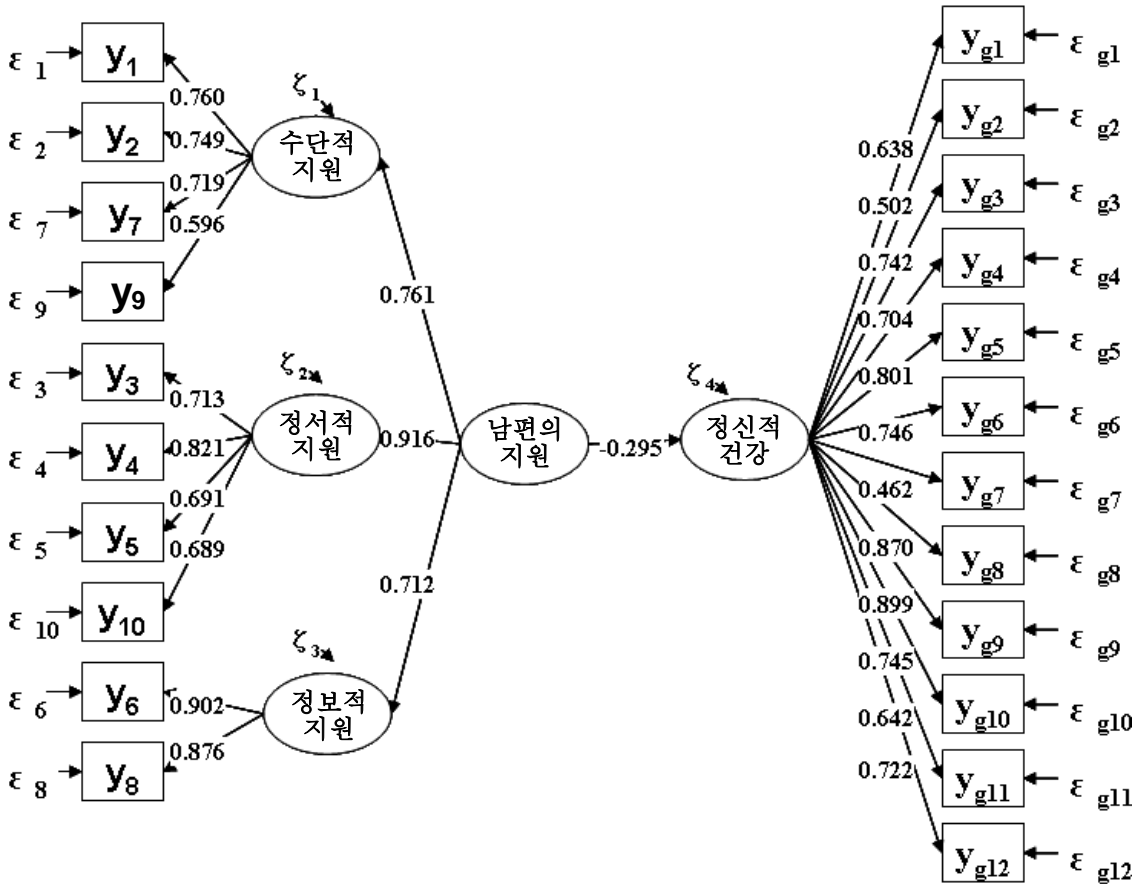


그림 2. 남편의 육아지원과 정신적 건강의 관계(한국: N=829)
GFI=0.957, AGFI=0.974, RMSEA=0.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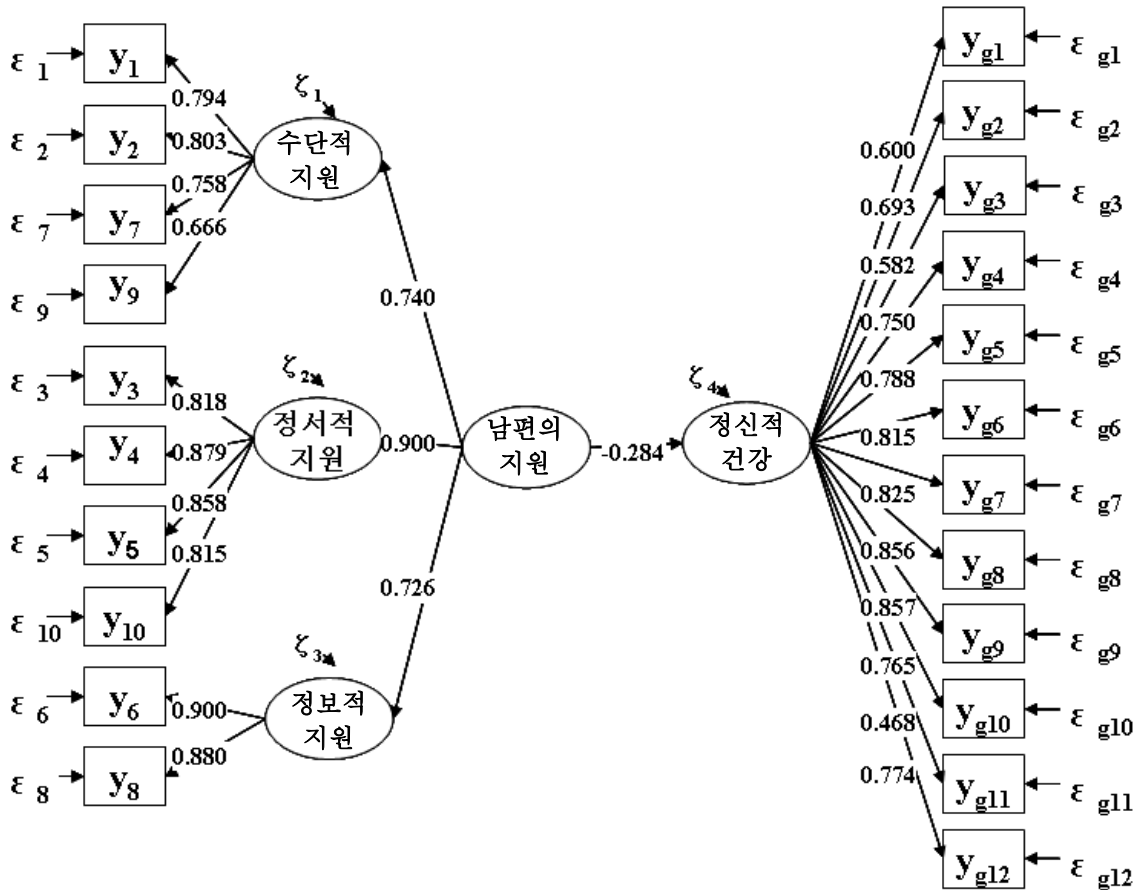


그림 3. 남편의 육아지원과 정신적 건강의 관계(일본: N=1,302)
GFI=0.954, AGFI=0.976, RMSEA=0.063

4. 남편의 「육아 지원 인지 득점」에 관한 한일 비교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의 인자 불변성이 확인됨으로써 본 데이터의 평균 득점을 산출해 한일간을 비교했다(표 5).

10항목 종합 득점의 평균 득점은 한국이 9.6점(표준편차 4.24), 일본이 11.4(표준편차 5.23)이었다. 인자별 평균 득점에서는 한국에서

는 「수단별 지원」이 3.7점(표준편차 1.96), 「정서적 지원」이 4.4점(표준편차 1.92), 「정보적 지원」이 1.6점(표준편차 1.19)이었다. 일본은 「수단적 지원」이 4.4점(표준편차 2.35), 「정서적 지원」이 5.3점(표준편차 2.46), 「정보적 지원」이 1.7점(표준편차 1.38)이었다.

그러나 인자별 관측 변수(항목수)가 다른 관계로 인자마다 득점을 관측 변수로 제거한 득

점(1항목당의 평균치)을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정서적 지원」이 1.1점(표준편차 0.48)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단적 지원」 0.9점(표준편차 0.49), 「정보적 지원」 0.8점(표준편차 0.59)의 순이었다. 일본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1.3점(표준편차 0.62)으로 가장 높았으며, 「

수단적 지원」이 1.1점(표준편차 0.57), 「정보적 지원」 0.9점(표준 편차 0.68)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부인들은 남편의 정서적인 지원에 비해서 수단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을 낮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종합 및 인자별 인지 평균득점

구분	한국(n=829)		일본(n=1302)		최대 - 최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자별 평균득점	수단적 지원	3.7	1.96	4.4	2.35	0 - 8
	정서적 지원	4.4	1.92	5.3	2.46	0 - 8
	정보적 지원	1.6	1.19	1.7	1.38	0 - 4
1항목당 평균득점	수단적 지원	0.9	0.49	1.1	0.57	0 - 2
	정서적 지원	1.1	0.48	1.3	0.62	0 - 2
	정보적 지원	0.8	0.59	0.9	0.68	0 - 2
종합 평균득점	9.6	4.24	11.4	5.23	0 - 8	

5. 육아 지원 인지 득점과 일반 특성과의 관계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인자별 득점을 조사 대상자의 연령, 교육 수준, 세대구성, 자녀수 등의 일반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일원배치 분산 분석에 의한 다중 비교로 검토했다.

먼저, 연령과 종합 득점과의 관련성을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연령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인자별로는 「수단적 지원」에 있어서 일본은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한국에서는 유의차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29세 이하의 인지 득점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서적 지원 득점」에서는 양국 모두 연령 계층별의 유의차는

없었지만 한국의 29세 이하의 인지 득점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보적 지원 득점」은 양국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득점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6-1>.

교육 수준과의 관계에서는 종합 득점에서 한일 양국 모두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 득점은 유의하게 높았다. 인자별로 보면 「수단적 지원 득점」은 일본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득점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한국 자료에서는 그러한 경향은 관찰 되지 않았다. 「정서적 지원」은 한일 양국 모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득점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일본 자료에서

는 모든 교육 수준간에 1%수준으로 유의차가 관찰되었다. 「정보적 지원」은 양국 모두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다<표 6-2>.

세대 구성과의 관계에서는 종합 득점에 있어서는 양국모두 「2세대」 < 「3세대」 < 「다세대」의 순서로 인지 득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본에서는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다중 비교에 있어서 다세대와 다른 세대간에 1% 수준으로 유의차가 관찰되었다. 같은 경향은 인자별로 보았을 경우 「수단적 지원」에도 관찰되었다. 「정서적 지원」은 한일 양국 모두 「2세대」 < 「3세대」 < 「다세대」의 순서로 평균 득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일본 데이터에서는 모든 세대 구성간에 유의차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한국 데이터에서는 「그 외」 세대와 다른 세대간에게만

유의차가 관찰되었다. 같은 경향은 「정보적 지원」에서도 관찰되어 일본 데이터에서는 1%수준으로 유의차가 관찰되었지만 한국 데이터에서는 「그 외」 세대와 다른 세대간에서만 1% 수준으로 유의차가 보여졌다<표 6-3>.

자녀 수와의 관계에서는 종합 득점에서 양국은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인지 득점이 낮아 5%수준으로 유의차가 관찰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중 비교결과 「1인」과 다른 자녀수간에 1%수준으로 유의차가 관찰되었다. 인자별로는 「수단적 지원」에서는 한일 양국 자료에서 종합 득점과 같은 경향이 관찰되어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인지 득점이 낮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 지원」, 「정보적 지원」에 대해서는 양국자료 모두 자녀수와의 사이에 유의차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6-4>.

표 6-1. 아내의 연령과 남편의 육아 지원 인지 득점 관계

요인	연령 단계	한국(n=829)				일본(n=1302)			
		인수	평균	표준편차	F	인수	평균	표준편차	F
육아지원 종합득점	29세 이하	112	10.6	4.84	2.42	156	11.2	5.19	1.89
	30-34세	482	9.4	4.08		558	11.5	5.16	
	35-39세	202	9.7	4.38		459	11.2	5.26	
	40세 이상	33	9.8	3.02		129	11.4	5.4	
수단적 지원	29세 이하	112	4.1	2.14	2.16	156	4.5	2.28	2.98*
	30-34세	482	3.6	1.93		558	4.4	2.33	
	35-39세	202	3.7	1.99		459	4.3	2.38	
	40세 이상	33	3.6	1.37		129	4.3	2.46	
인자별 정서적 지원	29세 이하	112	4.8	2.1	2.17	156	5.1	2.51	2.03
	30-34세	482	4.4	1.89		558	5.4	2.45	
	35-39세	202	4.3	1.94		459	5.3	2.49	
	40세 이상	33	4.2	1.51		129	5.3	2.46	
정보적 지원	29세 이하	112	1.6	1.24	4.32**	156	1.6	1.37	5.74**
	30-34세	482	1.4	1.18		558	1.7	1.37	
	35-39세	202	1.7	1.21		459	1.7	1.37	
	40세 이상	33	1.9	0.84		129	1.9	1.35	

표 6-2. 아내의 교육 수준과 남편의 육아 지원 인지 득점 관계

요인	교육 수준	한국(n=829)				일본(n=1302)			
		인수	평균	표준편차	F	인수	평균	표준편차	F
육아지원 종합득점	중학교 졸	27	9.3	4.52	3.12*	37	10.5	5.77	12.52**
	고등학교 졸	469	9.3	4.17		638	11.1	5.29	
	대학·전문학교 졸	138	9.9	4.08		468	11.6	5.13	
	대학교 졸 이상	195	10.3	4.41		159	12.1	4.98	
수단적 지원	중학교 졸	27	3.7	2.24	1.71	37	4.2	2.36	4.23**
	고등학교 졸	469	3.5	1.93		638	4.3	2.37	
	대학·전문학교 졸	138	3.7	1.75		468	4.4	2.35	
	대학교 졸 이상	195	3.9	2.11		159	4.6	2.31	
인자별 정서적 지원	중학교 졸	27	4.0	1.96	3.89**	37	4.6	2.81	24.42**
	고등학교 졸	469	4.3	1.92		638	5.1	2.48	
	대학·전문학교 졸	138	4.5	1.78		468	5.5	2.41	
	대학교 졸 이상	195	4.8	1.97		159	5.8	2.39	
정보적 지원	중학교 졸	27	1.6	1.15	1.79	37	1.7	1.41	1.87
	고등학교 졸	469	1.5	1.15		638	1.7	1.36	
	대학·전문학교 졸	138	1.7	1.24		468	1.8	1.38	
	대학교 졸 이상	195	1.6	1.26		159	1.7	1.36	

표 6-3. 세대 구성과 남편의 육아 지원 인지 득점 관계

요인	세대 구성	한국(n=829)				일본(n=1302)			
		인수	평균	표준편차	F	인수	평균	표준편차	F
육아지원 종합득점	2세대	689	9.6	4.22	3.54*	906	11.3	5.27	2.91*
	3세대	128	9.7	4.23		367	11.5	5.16	
	다세대	12	12.8	4.63		29	11.8	4.75	
수단적 지원	2세대	689	3.6	1.96	3.40*	906	4.4	2.36	1.53
	3세대	128	3.8	1.93		367	4.3	2.36	
	다세대	12	5.1	2.02		29	4.3	2.13	
인자별 정서적 지원	2세대	689	4.4	1.91	2.34	906	5.3	2.49	3.07*
	3세대	128	4.4	1.99		367	5.4	2.41	
	다세대	12	5.6	1.98		29	5.6	2.33	
정보적 지원	2세대	689	1.6	1.18	1.72	906	1.6	1.37	6.46**
	3세대	128	1.5	1.21		367	1.8	1.38	
	다세대	12	2.2	1.34		29	1.8	1.41	

표 6-4. 자녀 수와 남편의 육아 지원 인지 득점 관계

요인	자녀수	한국(n=829)				일본(n=1302)			
		인수	평균	표준편차	F	인수	평균	표준편차	F
육아지원 종합득점	1인	102	10.7	4.72	2.81*	232	11.6	5.21	2.85*
	2인	584	9.5	4.24		757	11.4	5.13	
	3인	133	9.4	3.82		276	11.1	5.46	
	4인 이상	10	8.0	2.75		37	10.8	5.54	
수단적 지원	1인	102	4.2	2.19	3.35*	232	4.6	2.36	5.82**
	2인	584	3.6	1.95		757	4.4	2.31	
	3인	133	3.5	1.79		276	4.2	2.45	
	4인 이상	10	2.8	1.14		37	4.0	2.46	
인자별 정서적 지원	1인	102	4.8	2.02	1.82	232	5.3	2.45	1.55
	2인	584	4.4	1.94		757	5.3	2.44	
	3인	133	4.3	1.79		276	5.2	2.55	
	4인 이상	10	3.8	1.14		37	5.2	2.54	
정보적 지원	1인	102	1.7	1.24	0.81	232	1.7	1.38	0.72
	2인	584	1.5	1.21		757	1.7	1.37	
	3인	133	1.6	1.09		276	1.7	1.38	
	4인 이상	10	1.4	1.26		37	1.6	1.33	

IV. 고찰

본 연구는 첫째 한일 자료를 이용해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의 인자 불변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 척도의 인자 모델은 「정서적 지원 인지」 「수단적 지원 인지」 「정보적 지원 인지」를 일차 인자,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를 2차 인자로 하는 2차 인자 모델로 구성하였다. 이 인자 모델은 이미 연구자가 일본 자료에 적용한 바 있다(中嶋和夫 등, 2000).

전기 인자 모델의 인자 불변성을 한일 양국 자료를 가지고, 적합도 지표의 변화를 모수의 동치 고정을 추가하면서 관찰한 결과 모수의 동치 고정의 추가에 의해 GFI는 제 5단계 이후에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AGFI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모수를 고

정한 조건하(제6 단계)에 있어서도 적합도 지표는 통계학적인 허용 수준에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표본은 한국과 일본과 같이 역사적·문화적으로도 다른 배경을 가진 지역으로부터 추출되었으며, 또한 표본 수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인자분석에서 모든 경로계수(인자 부하) 및 잔차분산·공분산이 모집단 간에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의 인자 모델이 지극히 강한 불변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 척도의 인자 모델의 구성개념 타당성이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육아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부인에게는 스트레스 증상을 일으키는 잠재적(潛在的)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Hopkins 등, 1984; Yung과

Bentler, 1994; 中嶋和夫 등, 1999; 岡田節子 등, 2002). 그런데, 부인이 이 잠재적 스트레스 원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면 (Yung과 Bentler, 1994), 그 결과는 부인에게 심리적·신체적인 스트레스 증상을 발생시키게 되지만 그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남편의 지지를 통하여 육아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육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에 관한 인자 모델의 인자 불변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와 정신적 건강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인과관계 모델을 다중지표 모델로 가정해서 구조 방정식 모델링 방법을 이용해 검토 했다. 그 결과 양자의 관계는 한국·일본 데이터 모두 GFI, AGFI, RMSEA에 있어서 통계학적인 허용 수준을 도달하고 있었다. 기여율은 한국이 -29.5%, 일본이 -28.4%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남편의 육아지원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는 부인은 정신적 건강도 양호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지지와 정신적 건강도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Gjerdingen 등, 1991; Anderson과 Teleen, 1992; 田中宏二와 難波茂美, 1997), 남편이 육아에 참가하기 쉬운 사회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히 핵가족화와 출산률 저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국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 고령화 기본

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설치되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이 수립되어 2010년까지 자녀양육부담 경감, 육아인프라 구축,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한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06).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 목적이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특히 모성의 건강과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출산율 저하 대책과 육아 지원의 일환으로서 199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Engel Plan」, 199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New Engel Plan」을 수립하여 일과 육아의 양립 및 지역사회에서의 육아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2002년에는 「저출산율에 대한 대책 plus one」을 작성해, 지방 자치단체와 각 기업에 「행동 계획」을 책정하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제언하고 있다(厚生統計協會, 2003). 2004년에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제정하여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양육능력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육성하는 가정을 사회전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이법에 의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역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육성지원지역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의 하루 육아시간은 아내가 2시간 40분인데 비하여 남편은 20분 이하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日本女性學習財団, 2006). 남편의 육아 참가는 아직도 지극히 불충

분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같이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정부나 지방자치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자 불변성이 확인된 이 척도를 이용하여 평균 득점을 산출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부인이 남편의 지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국 모두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단적 지원」, 「정보적 지원」의 순이었다. 종합 득점 및 인자별 득점 모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낮은 득점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 양국은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가 같은 구조(「정서적 지원 인지」 「수단적 지원 인지」 「정보적 지원 인지」)를 일차 인자, 「아버지의 육아 지원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를 2차 인자로 하는 2차 인자 모델을 가지면서도 양적으로는 차이를 시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구미제국과 비교하면 「육아는 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역할 분담 의식이 높고, 남편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참가가 적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남편의 육아 지원이 일본보다 한국이 낮다는 것은 부인들의 육아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한층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자별 득점에 주목해보면, 양국은 정서적 지원에 비해 수단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이 낮게 관찰되었다. 이것은 육아 장면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남편의 지원이 부인으로부터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편의 육아 지원 득점과 부인의 일반적 특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국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적 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 득점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는 특히 연령 계층과의 관련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어머니의 연령이 낮아(따라서 아이들도 어리다) 육아에서 실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때에 남편으로부터의 지원이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 수준과의 관계에서는 종합 득점 및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득점을 보였다. 이것은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고정적인 남녀의 역할 분담 의식에서 벗어나 가사·육아의 분담과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세대 구성과의 관계에서는 한국 데이터와 일본 데이터 모두 「부부와 자녀」 세대, 「부부와 자녀와 부모」 세대, 그 외의 세대의 순으로 남편의 지원 득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 외 세대(다세대 가족)의 지원 득점이 높는데 비해 핵가족 세대의 지원득점이 낮았다. 자녀수와 관계에서는 남편의 육아 지원 종합 득점 및 「수단적 지원」 득점에 있어서 한국 데이터, 일본 데이터 모두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 득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핵가족에 복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야말로 육아에 수반하는 여러가지 곤란함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측정척도」를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남편의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취학전 자녀를 가진 한국과 일본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이용했다. 척도에 대한 타당성은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한 동시인자분석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를 구성하는 10항목의 인자 구조 모델, 즉 「정서적 지원 인지」 「수단적 지원 인지」 「정보적 지원 인지」를 일차 인자로,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를 2차 인자로 하는 2차 인자 모델이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에 적합했다. 이것은 「남편의 육아 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부인의 인지」와 정신적 건강도(GHQ)의 관련성을 다중지표 모델로 검토한 결과 한국 데이터와 일본 데이터의 관련 정도는 유사하였다. 즉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아내의 인지가 아내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기여율로 나타낼 때 각각 -29.5%와 -28.4%였다. 상기 척도로 측정된 특점은 부인의 교육 수준, 가족구성, 자녀수와 관련성이 높았다.

보건복지 영역에 있어서 한일 비교 연구가 실증적인 관점에서 검토된 것이 결코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 척도의 구성 개념 타당성의 검토등을 이용하여 연구 교류를 높여 가는 것이 보다 일반성이 높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서울: 관계부처합동, 2006.
- 김승권.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승권, 조애지, 이삼식, 김유경, 송인주.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통계청. 장래의 인구추계. 서울: 통계청, 200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백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國立女性教育會館. 家庭教育に關する國際比較調査. 東京: 日本女性學習財団, 2006.
- 岡田節子, 朴千萬, 嚴基郁, 中嶋和夫. 育児に起因する母親のバーンアウト. 静岡縣立大學短期大學部研究紀要, 2002;15:179-187.
- 網野武博. 多様化する子育て支援のニーズとその對應. 周産期醫學, 1993;23(6):857-860.
- 狩野裕. グラフィカル多變量解析—目で見る共分散構造分析. 東京: 現代數學社, 1997.
- 田中宏二, 難波茂美. 育児ストレスにおけるソーシャル・サポート研究の概観. 岡山大學教育學部研究集録 1997;104:177-185.
- 中嶋和夫, 桑田寛子, 林仁實, 岡田節子, 朴千萬, 齋藤友介, 間三千夫. 父親の育児サポートに關する母親の認知. 厚生の指標, 2000;47(15):1-8.
- 中嶋和夫, 齋藤友介, 岡田節子. 母親の育児負擔感に關する尺度化. 厚生の指標, 1999;46(3):11-18.
- 川井尙. 育児における父親の役割. 小兒保健研究, 1992;51(6):671-678.
- 厚生勞働省. 平成13年度版厚生勞働白書: 生涯にわたり個人の自立を支援する厚生勞働行政. 東京: ぎょうせい, 2001.
- 厚生省. 平成10年度版厚生白書: 子どもを産み育てることに「夢」を持てる社會を. 東京: ぎょうせい, 1998.
- 厚生統計協會. 國民福祉の動向. 東京: 厚生統計協會, 2003.

- Anderson PA, Teleen SL.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ternal behaviors and attitudes: A meta-analytic review. *Am J Community Psychol*, 1992;20(6):753-774.
- Arbuckle JL. Amos user's guide version 3.6. Chicago: Small Waters Corporation, 1997.
- Folkman S.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4;46(4):839-852.
- Gjerdengen DK, Olmsted MP, Garner D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women's health during pregnancy, labor and delivery, and the postpartum period. *Family Medicine Special Articles*, 1991;23(5):370-375.
- Goldenberg DP and Hiller VF: A scaled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Psychological Medicine*, 1979;9:139-145.
- Hopkins J, Marucus M, Cambell B. Postpartum depression: A critical review. *Psychol Bull*, 1984;95(3):498-515.
- House JS, Robbins C, Metzner HL. The associ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with mortalit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982;116:123-140.
- Joreskog KG. Simultaneous factor analysis in several populations. *Psychometrika*, 1971;36(4):409-426.
- Lazarus RS, Folkman S. Transaction theory and research on emotions as coping. *Eur J Pers*, 1987;1:141-169.
- Lazarus RS, Smith CA. Knowledge and appraisal in the cognition-emotion relationship. *Cog Emo*, 1988;2:281-300.
- Yung YF, Bentler PM. Bootstrap-corrected ADF test statistics. *Br J Math Stat Psychol*, 1994;47:63-84.

<ABSTRACT>

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and its Relationship with Mental Health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Chun Man Park*[†] · Setsuko Okad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Woosong University*

To commonly apply the 「Measurement parameter for housewives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in Korea and Japan, the current study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and mental health afte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rameter.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829 married Korean women in D city and 1,302 Japanese women in S city having children before entering a school were subjected for the study. Fo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parameter, the simultaneous factor analysis that adopte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10 categories of factor structural model comprising the 「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resulted with the secondary model which sets of 「Recognition for emotional support」, 「Recognition for instrumental support」 and 「Recognition for information support」 as the primary factor and 「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as the secondary factor, and the model was found to be appropriate for the data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 is considered to prove the constructs validity of 「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parameter.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a housewife for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and mental health(GHQ) was reviewed by using multiple indicator model, and found the similarity of Korean and Japanese data. The scores measured by using the above parameter resulted to show high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level of housewife, family configuration, and number of children.

Key words : Rearing-related supports of a husband; Recognition of a housewife; Mental health